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저주

(고후11:7~12)

7.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9.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저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해서 아주 호소력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KOSTA 라든지 하는 젊은이들만의 부흥 스타일의 모임들이 있고, 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발전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 끓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들 중에서 눈에 띠는 부분이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젊은이들에게 주는 아주 설득력 있는 말씀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정말 군침 돌게 표현하면서 계속 이 구호를 외쳐댑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도 교회를 부흥시킨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전혀 비(非)복음적입니다.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입니다.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선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구호를 복음이라는 명분 아래서 전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구호가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를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신앙 바깥으로 나간 것입니다.
영성이 아닌 종교성의 영역으로 떨어져 들어간 것이고,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많이 인용되는 말은 본회퍼 목사님께서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현대 교회를 비판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시간에 본회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값싼 은혜를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비판적으로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귀중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고린도교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쓴 내용인데, 우리가 다룬 부분이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다뤘어요, 내용적으로.
그러면 그 가운데서 다루지 않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또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로부터 신수비, 선교후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권이 의심받고 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기록한 얘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먼저 사도바울 선생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사도바울 선생님은 왜 고린도교회로부터 선교후원금이나 신수비를 받지 않았을까?
선교에 임하는 개인적인 원칙 같은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자비량선교 원칙 때문인가?
그것 때문이라면 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는 선교후원금을 받았는가?

더군다나 앞의 8장에서 보았듯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환란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교회들입니다.
바울 선생님 자신도 그 마케도니아 교인들로부터 선교후원금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으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받았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마케도니아의 그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교인들에게 선교후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받습니다.
반면에 고린도교회는 아마 사도바울 선생님이 선교를 하면서 세운 교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죽어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받겠다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과연 사도냐 하는 질문을 교회 내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교회에서 값없이 전했으면 다른 곳에서는 제값 받고 전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왜 고린도교인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전했다고 얘기할까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처럼 선교후원금을 보낸, 그리고 받은 교회는 그러면 값을 받고전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질문은 그 적대자들과 적대자들에게 동조하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후원금이나 신수비를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군침을 흘리면서 그런 의도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는 것이 문제이지, 안 받고 전하겠다는 것이 왜 사도적인 권위를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흥미롭게 한다 이겁니다.
도대체 뭔가?
고린도교회에 대한 선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교통과 무역 중심의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갖가지의 문화가 들어와 있었고 다양한 이방종교가 유입돼있던 장소에요.
그런데다가 돈이 도는 도시였습니다.
아마 교회 재정도 가장 풍부한 교회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유행하던 헬라철학의 순회교사들의 관행이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강의나 가르침에 대해서 철저히 수강료를 대가로 요구하고, 또 이 순회교사들에게 듣고 배우는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강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회교사들의 인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인기 정도에 따라서 수강료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회교사들끼리 경쟁관계에 있었을 것이에요.
소크라테스 때도 기원전 500년인데, 소크라테스 가르침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비난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선생들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일에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따랐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고 있는 이 도시로, 온갖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하여 개방적일 수밖에 없는 이 고린도를 향하여 유명하다는 순회교사들이 몰려왔을 것임은 자명할 것입니다.
수강료를 챙기려는 교사들이 가난한 도시로 몰려갔을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고린도 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익숙한 관행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을 얻는다든지 가치 있는 어떤 지식을 얻는 데에는 반드시 수강료 등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여겨지는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유명한 교사일수록, 그리고 가치 있는 가르침일수록 그에 대해 지불해야 될 대가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파, 아볼로 파, 바울 파, 했던 것도 다 자기 취향에 맞는 교사들을 향한 팬클럽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수강료가 비쌀수록 가치 있는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지요.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고린도의 분위기 안에서 고린도교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교인들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이유 때문에 고린도교인들 중 일부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설득돼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복음을 팔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 고린도교인들의 마음가짐이 뭔가 새로운 것을 얻게 되고 배우게 될 때는 수강료를 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세팅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돈을 사도바울에게 주게 될 경우는 이것은 수강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 식으로 팔 수 없는 것이었고, 또 고린도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 수강료가 비싼 것일수록 비싼 가르침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사도바울이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 때문에 그들의 마음상태를 보고 돈을 받지 않게 되니까, 싼 게 비지떡이다, 공짜로 주는 것이 어련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고린도교인들 앞에서 이제는 '아, 알았다 그러면 내가 그 마음가짐들을 헤아려서 조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게 아니라 더 강경하게 나갑니다.
과거에도 받지 않았고 지금도 받지 않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이 마케도니아 아래쪽의 고린도가 속해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아가야 지방에서의 나의 자랑을 내가 그치지 않겠다' 무슨 얘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돈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상 너희같이 모든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의 내용과 견주어볼 때 도저히 그 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마음가짐에는 복음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새로운 것을 얻겠다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정직하고 올바른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서는 앞으로 절대 돈을 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돈을 받지 않은 걸 너무너무 잘한 것이라고 끝까지 자랑하겠다.
복음의 내용이 대체 뭐기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마케도니아 지방의 그렇게 가난한 교인들에게서는 왜 돈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세팅이 돼있어서 복음을 파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내용상으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복음이지요?
밥 먹여줍니까, 돈을 가져다줍니까, 건강을 가져다줍니까, 직장을 줍니까, 성공을 줍니까, 형통을 줍니까?
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여서 살고 있는 동안에 주어질 수도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것도 직접적으로 복음과 묶여있는 본질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소위 칭의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의 문제가 칭의에 너무 강조점을 두면서 칭의가 하나의 과정인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의롭다고 여겨지고 죄 사함이 중요한 이유는 더러움을 갖고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칭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네가 나와 관계할 정도로 깨끗해졌다'고 하는 인정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강조될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강조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욱 더 강조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신칭의만을 강조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신칭의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돌이켜 아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아주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7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의 사진을 집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더니 집사람이 피식 웃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힘들어서 낳은 아기를 볼 때 엄마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건 그냥 낳은 것도 아니고 17년 만에 난 아기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 왜 웃느냐고 했더니 아기 모습이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기를 진짜 안을 때도 또 웃어요, 아이가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합니다.
아기를 낳고 웃기게 생겼다고 웃던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관찰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점점 아이에게 깊이 빠져들어 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낳아는 놓았지만 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이 드는데 엄청난 속도로 빠져들어 갑니다.
이제 저 같은 거는 마음의 안중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저는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들을 집사람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 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폭적으로 엄마가 완전히 100%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무한대로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마음이 투입이 되면서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가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들이 처음부터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는다면, 세상에 자기 아이에 대해 엄마로서 정을 가질 엄마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으면서 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분의 첫 번째 과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명은 그 뒤의 문제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의 요구이기 때문에.
존재가 있고서야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양으로 돌아가 버리십니다.
어린양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방어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기로 돌아가 버리신 겁니다.
왜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아버지가 말 한 마디까지 예수님의 입에 담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십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응애 하고 태어난 아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교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지불하면 그 대가로 내가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배우고도 돈을 지불하려 했던 겁니다.
그 마음가짐으로는 복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완전히 아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린도교인들은 돈을 두둑하게 갖고 있으면서 이 돈으로 지불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성숙한 성인의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식상태 그대로 복음이 거래가 되면 복음은 무효가 됩니다.
십자가가 뭐하는 겁니까? 우리를 아기로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습니까?
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빌립보 교회와 마케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연보도 하고 사도바울에게 후원금도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로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연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후원금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통해 주시는 것이라서 사도바울이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근데 고린도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대가로 그들이 돈을 지불하려 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받지 않았고, 받지 않고 있고,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 그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런 필요를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 필요에 대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아기의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실지언정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런 망발을 하지도 말 것이며 속지도 말 것입니다.

아기로 돌이켜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되는 열매로서의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로써만 이루어지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매사에 완전히 무력한 어린아이가 됨으로, 하늘에 계시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하나 되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